

# “창조·선도 역점... 시대흐름 맞춰 신한 모든 것 바뀌어야”

## 새해 새 전략... 쏘wat (So What)

###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

“원 신한 매트릭스 성과 높여 그룹 시너지 더욱 발휘해야” 주도권 확보 7대 전략 제시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리딩금융 그룹으로 도약하기 위한 방안으로 창조적 실행력을 강조했다.

조 회장은 지난 4일 경기도 기흥 신한은행 연수원에서 열린 ‘2019년 신한경영포럼’에서 “올해는 창조와 선도를 신함에 역점을 두고 그룹 전체가 창조적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며 “신한이 가진 조직문화 원 신한(One Shinhan)을 통해 새로운 차원의 시너지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조 회장을 비롯한 전 그룹사 최고경영자(CEO)와 경영진 및 본부장 350여 명이 참석했다.

◆원 신한(One Shinhan)이 차별적 경쟁력 올해 신한금융의 슬로건은 작년과 같은 ‘더 높은 시선(視線), 창조(創造)하는 신한’이다. 지난해 ‘더 높은 시선’에 좀더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지난 4일 경기도 기흥 신한은행 연수원에서 열린 2019년 신한경영포럼에서 ‘원신한으로 창조하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집중했다면 올해는 ‘창조하는 신한’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조 회장은 “원 신한은 그룹사의 단순한 합(合)이 아닌 신한만의 차별적 경쟁력이자 현장의 원동력”이라며 “글로벌, 글로벌투자은행(GIB), 자산관리(WM), 고유자산 운용(GMS) 등 원 신한 매트릭스의 성과를 높이고 그룹 시너지를 더욱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그는 “내 한 몸 꽃이면 온 세상이 봄”이라는 뜻의 ‘일신개시화(一身皆是花) 일가도시춘(一家都是春)’이란 말

을 인용하며 “신한의 한 사람 한 사람이 꽃을 피우면 신한이 아시아 리딩 금융그룹으로 도약 할 수 있을 것이며, 리더 여러 한 사람 한 사람이 원 신산을 위해 노력하면 그룹 전체가 진정한 원신한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한금융은 이미 지난해 지주회사 출범 후 처음으로 지주회사 창립기념식이 아닌 그룹의 창립기념식으로 확대 실시하고, 일체감을 높이기 위해 원 신한 배지를 수여한 바 있다.

금융산업의 미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7대 전략과제로는 ▲원 신한 가치창출 확대 ▲미래성장 포트폴리오 확장 ▲글로벌 질적 성장성 확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성과 확대 ▲지속성장경영(ESG) 체계 확립 ▲고도화된 리스크관리 역량 확산 ▲시대를 선도하는 신한문화 확장 등을 제시했다.

### ◆“신한의 모든 것 바뀌라”

조 회장은 쇠신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이미 지난해 말 역대 최대 규모의 세대교체를 단행한 바 있다

그는 신년사를 통해 “환경이 급격하게 바뀌는 위기에서 기존 틀에 갇혀 있거나 평범한 변화에 머문다면 결코 살아남을 수 없다”며 “시대 흐름에 맞춰 신한의 모든 것을 완벽히 탈바꿈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조 회장은 “조직 체계부터 시스템·프로세스, 상품·서비스까지 익숙했던 관행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혁신의 길로 나서야 한다”며 “조직 전반에 근본적 변화를 주도자 작른 말 세대교체를 위한 그룹 경영진 인사를 단행했으며, 앞으로도 능력 있는 인재 중용, 외부인재 수혈, 여성리더 육성 등 그룹 차원의 쇠신 노력을 지속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적극적인 인수합병(M&A)로 1등 탈환의 발판이 됐다.

그는 “현재 인수작업을 진행 중인 오픈 지라이프와 아시아신탁 역시 최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존 그룹사와 긴밀히 협업해 신한에 강점인 균형잡힌 포트폴리오를 강화시킬 것”이라고 기대했다.

리딩 금융그룹으로서의 역할도 강조했다.

조 회장은 “기업의 혁신과 투자를 지원하는 본연의 역할과 함께 서민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꿈을 가진 청년 창업과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해야 한다”며 “친환경 경영에 앞장서는 한편, 글로벌 책임은행원칙 수립 등 전세계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한 책무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의 사자성어로는 무감어수(無鑑於水)와 생생불식(生生不息)을 언급했다.

그는 “이제 우리 자신의 시선이 아니라 고객과 사회의 높아진 시선으로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며 “불확실한 경영 환경 속에서 신한이 지속 성장을 위해 관행에서 벗어나 끊임없이 새로움을 창조해 가자”고 당부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 HUG 대출로 전세보증금 반환걱정 ‘썩~’

### 금감원 Q&A

HUG ‘전세자금 안심대출’ 임대인 대신해 보증금 반환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앞 모습. /연합뉴스

Q. 최근 이사를 하면서 한참 동안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곤란을 겪었습니다. 제가 전세계약을 맺었던 때보다 전세가격이 많이 떨어지면서 집주인이 제게 돌려줄 전세금을 제때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을 겪지 않을 좋은 방법 없을까요?

A. 전세 보증금을 확실하게 돌려받고 싶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자금 안심대출’을 이용하세요. 안심대출을 이용하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거나 반환하지 않더라도 HUG에서 임대인을 대신해 전세보증금을 돌려줍니다. 이후의 절차는 보증기관에서 전담하며, 세입자는 돌려받은 보증금으로 이사하면 됩니다.

안심대출을 이용하려면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전세자금 안심대출 상품을 문의하고 가입하면 됩니다. 별도로 HUG를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 안심대출이 아닌, 예를 들어 주택금융공사의 보증대출 등

다른 전세자금 대출상품을 이용하고 있다면 HUG나 서울보증보험을 방문해 안심대출과 유사한 다른 상품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안심대출을 이용하면 다른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때보다 비용을 조금 더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차이가 크지 않고 조건에 따라 보증료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2억원, 대출금 1억6000만을 가정할 경우 한 달에 약 8000원 더 납니다. 대출자가 연소득 4000만원(신혼부부는 6000만원) 이하이거나 다자녀·한부모 가구인 경우 보증료는 할인됩니다.

모든 세입자가 안심대출을 이용할 필요는 없지만 입주할 거주지가 최근 1년간 전세가 하락세를 보이는 지역이면서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혹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 반환이 걱정될 경우 안심대출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김희주 기자

### <1970~2017년 기대수명>

구분	1970년	1980년	1990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16년	2017년
전체	62.27	66.15	71.66	76.01	78.24	80.24	82.06	82.36	82.69
남자	58.74	61.89	67.46	72.35	74.89	76.84	78.96	79.3	79.67
여자	65.81	70.41	75.87	79.67	81.6	83.63	85.17	85.41	85.71

(단위 : 년)

/자료=통계청

## 2022년 K-ICS에 ‘장수위험’ 추가

# 생보사, 요구자본 부담 5조원 늘어난다

### ‘사망률 17.5% 개선’ 가정해 산출

오는 2022년 도입되는 신지급여력제도(K-ICS)에 ‘장수위험’이 추가되면서 보험사의 요구자본 부담이 5조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장수위험 요구자본 제도를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6일 보험연구원의 ‘미국의 장수위험 요구자본 도입 논의’ 보고서에 따르면 그동안 우리나라의 현행 요구자본 제도는 미국의 RBC(지급여력비율) 제도와 유사해 미국과 마찬가지로 장수위험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 장수위험을 요구자본에 반영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준비금에서 최선추정 준비금을 직접한 뒤 사망률 개선 충격을 감안한 준비금과 최선추정 준비금의 차이를 요구자본으로 적립하는 방식이다.

장수위험 요구자본 도입 시 대략 5~10

년간 지급능력을 고려하는 RBC제도와 달리 장수위험은 계약의 전 기간을 고려해야 하며, 준비금과의 중복 계산을 피하고 장수위험과 기타 위험 간의 상관관계를 반영하는 등의 고려사항이 필요하다.

보험사는 장수위험에 대한 준비를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다. 오는 2022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으로 부채평가 방식이 시가평가 방식으로 변경됐고, 이에 따른 새로운 요구자본 제도 설계로 장수위험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해 금융감독원은 K-ICS 도입 초안에서 장수위험, 해지위험, 사업비위험, 대재해 위험 등을 신규로 추가하기로 했다.

보험연구원의 ‘보험회사의 장수위험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사가 장수위험의 추가로 준비해야 하는 요구자본은 최소 3조9100억원에서 최대 5조4600억원에 달한다. 이는 IFRS17 도입을 위해

전체 생명보험업계가 쌓아야 하는 추가 자본금인 33조4000억원의 11.7~16.3%에 해당한다. 이 같은 결과는 지급보다 사망률(10만명당 사망자 수)이 17.5% 개선된다는 것을 가정해 산출됐는데,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해당 금액은 추정치보다 커질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태어난 출생아의 평균 기대수명은 82.7년으로 전년 대비 0.3년 늘어났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79.7세, 여성은 85.7세로 지난 10년간 각각 3.3년, 3.8년 늘어났다.

보험사가 요구자본이 늘어나는 만큼 지급여력금액을 늘리지 않을 경우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은 하락하게 된다. 새로운 회계기준 도입으로 보험사의 자본확충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장수위험’까지 추가되면서 보험사의 자본확충 압박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김희주 기자 hj89@

## 신한은행 원주 화재피해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한은행은 원주 중앙시장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피해시설 복구와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이번 화재 피해 사실이 확인된 고객에 대해 긴급 운전자금 및 화재 복구를 위한 시설자금 최고 1억원을 지원한다. 또 화재 피해 고객의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최고 1.0%포인트 금리 우대와

분할 상환 유예, 만기 시 무내입(만기 연장) 때 원금 일부 상환받지 않음) 만기 연장을 지원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원주 중앙시장 화재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해 신속하게 금융지원 방안을 결정했다”며 “화재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피해 회복을 위한 자금확보와 신속한 복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 NH농협금융지주 ‘소 근출혈 보상보험’ 출시

NH농협금융지주는 지난 4일 농협경제지주와 함께 축산농가의 오랜 숙원사업인 ‘소 근출혈 보상보험’ 출시를 기념하는 행사를 가졌다고 6일 밝혔다.

근출혈은 근육 내에 존재하는 모세혈관 파열로 혈액이 근육 내에 퍼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근출혈이 발생하면 혈액이 근육 속에 남아 저장성이 나빠질 뿐만 아니라 고기의 상품성이 떨어져 농가는 마리당 적게는 50만원에서 많게는 300만원 가량 손해를 본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2017년 한우 근출혈 발생률은 1%로 근출혈이 발생한 한우만 7400여 마리에 달해 한우농가는 약 50억원 가량 손해를 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축산농가의 리스크 제거를 목적으로 농협안심축산분사와 NH농협손해보험에서 개발한 피해보상 보험은 정상도체 평균 경락가격과 근출혈 도체 경락가격의 차액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번 출시된 ‘소 근출혈 보상보험’은



지난 4일 서울 서대문 NH농협금융 본사에서 열린 ‘소 근출혈 보상보험’ 출시 기념행사(왼쪽부터)김광수 회장과 NH농협손해보험 오병관 대표, 농협축산경제 김태현 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난 1일부터 농협 4대 공판장(음성, 부천, 나주, 고령)에 출하·도축되는 소부터 우선 적용된다. /안상미 기자